



“요절복통 라이어가 또 왔어요”

‘라이어 3탄-튀어’ 광주 공연 15~20일 5·18기념문화센터

관객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드는 코믹 연극 ‘라이어’의 세번째 시리즈인 ‘라이어 3탄-튀어’가 광주 공연을 갖는다. 15~20일 평일 오후 7시30분, 주말 3시·7시 5·18기념문화센터.

우연히 거금이 든 가방을 바꿔 들게 된 소시민과 주변인물들이 하룻밤 동안 벌이는 해프닝을 그린 ‘라이어 3탄-튀어’는 설 새 없이 이어지는 대사와 숨 돌릴 틈 없는 빠른 극 전개로 웃음 폭탄을 터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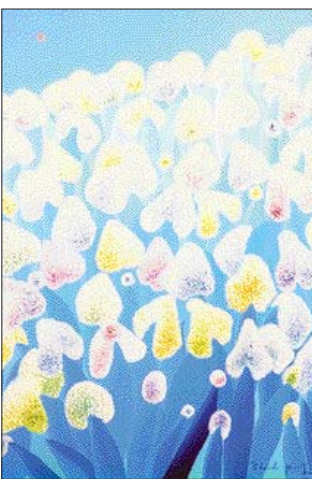
말단 농업 창구 직원 이영호는 자신의 생일날 합승한 택시에서 자신의 가방과 100만원 상당이 든 야쿠자의 돈가방이 바뀐 사실을 알고 아내 은영과 함께 외국으로 될 생각을 한다. 영호의 뒤를 밟은 김태식 형사는 그를 아동 성추행범으로 오인하게 되고, 영호의 생일 잔치에 초대된 현준 부부는 영호가 추행범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일은 꼬여만 간다.

이 때 가방을 바꿔간 야쿠자 운반책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이 시체를 영호로 오인한 최성진 형사는 집으로 찾아와 은영에게 남편이 죽었다고 말한다. 티켓가격 3만 5천원, 2만 5천원. 문의 062-372-03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꽃보다 더 아름다운 ‘양파꽃’

최향씨 개인전, 15~26일 서울 진화랑

양파꽃이 캔버스 가득 꽃망울을 터트렸다. 흔히 양파꽃을 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구상작가 최향씨가 풀어진 양파꽃은 꽃 이상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최향씨가 15~26일까지 서울 진화랑에서 ‘꽃은... 바람에 흩날리고...’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최씨는 무안·해남 등지에서 봄이면 피는 양파꽃 군락을 연두, 노랑, 보라, 분홍, 파랑 등의 감각적인 빛깔로 표현한 꽃망울을 전시한다. 모델수록 더욱 빛을 내는 양파꽃의 아름다움을 화면 가득 담았다.

일과 대를 넘겨 그려 봄의 생명력을 표현했고, 아가자기하게 처리된 꽃술의 도드라진 질감을 살렸다. 은박지를 구겨 붙여 놓은 듯 잔 빛질로 오묘조밀하게 그려낸 꽃술은 입체감을 느끼게 해준다.

최씨는 홍익대 미술대학 출신으로 브라질 상파울로 예술원, 뉴욕 한국 현대미술 초대전을 가졌고 헝가리 기오르 비엔날레 한국전, 한·일국제현대미술제 등에 출품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불내에 취하고~詩香에 취하고~ 문학축제에 빠져 봅시다



〈김윤식〉



〈유치환〉



〈김유정〉

봄기운이 완연한 4월, 문학의 향기에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국 각지에서 문학 관련 행사가 풍성하다. 특히 올해는 김유정, 유치환 등 탄생 100주년을 맞는 문인들을 기리는 기획행사도 준비돼 더욱 다채롭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시인이자 민족운동가로 유명한 영랑(永郎) 김윤식(1903~1950) 시인을 기리는 제3회 영랑문학제가 오는 25~27일까지 3일간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 일대에서 열린다.

영랑생가 국가지정 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252호) 승격 기념식과 함께 열리는 개막식에는 세계적인 성악가 바리톤 김동규 교수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친숙한 삶의 노래로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안치환 등이 출연한다.

또 ‘접시꽃 당신’의 도종환 시인과 영랑선생의 친손녀이며 창원 성산아트홀 관장인 소프라노 김혜경씨도 함께한다.

제6회 영랑시문학상의 본상을 수상한 신달자 시인의 특강(26일)과 함께 제4회 전국 영랑백일장, 시 낭송대회, 시문학 심포지엄, 모란예술제 등 다채로운 문학행사가 열린다. 이밖에 영랑 시화전, 강진 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061-433-3779)

광산군과 광산문화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학교 제2캠퍼스에서 제17회 용아 박용철(1904~1938) 전국백일장을 연다. (062-941-3377)



영랑 김윤식 시인을 기리는 ‘제3회 영랑문학제’가 오는 25일부터 3일간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 일대에서 열린다. 사진은 영랑생가 모습.

강진 영랑문학제 25~27일 시 낭송·시화전 등 다채

박용철 전국백일장 24일 광산구 호남대 제2캠퍼스

김유정·유치환 문학제-천상병 예술제 등도 잇따라

김유정, 유치환, 이무영 등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문인들을 기리는 행사는 더욱 풍성하다. 강원도 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일원에서는 제6회 김유정문학제가 열린다.

25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김유정 재조명 학술세미나와 산문 백일장, 김유정 소설 입체 낭송대회, 김유정 문학기행열차, 문학현장답사 등이 펼쳐진다.

김유정 작품 ‘봄·봄’, ‘동백꽃’의 주인공인 점순이와 같은 당찬 이미지의 여성을 선별하는 ‘점순이를 찾습니다’, ‘동백꽃’처럼 토종종에 고추장을 먹여 진행되는 닭싸움 등 이색 행사도 마련된다.

청마(靑馬) 유치환(1908~1967) 시인을 기리는 기념문학제는 경남 거제시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문학제에는 시비 제막식과 청마 시 창작 노래 발표, 시 낭송, 청마 작품 시극, 청마의 길 선포식, 시문학 심포지엄, 문학기행, 시화전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거제시 덕덕면 방하리에 청마의 생애와 작품을 소개하는 청마기념관이 건립돼 오는 18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천상병(1930~1993) 시인의 15주기를 맞아 26일부터 5월5일까지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는 제5회 천상병예술제도 열린다. ‘시가 흐르는 천상 음악회’, ‘천상특별전-도적놈 셋이서’, 한국 현대시 100주년 기념 세미나 등이 마련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아름다운 우리 탐’展

국립광주박물관 5월 12일까지



‘운주사 7층 석탑’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 5월12일까지 장흥 보림사 삼층석탑, 순천 선암사 삼층석탑 등 전라도의 대표적인 석탑을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탐’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문화재사진연구소 회원 12명이 호남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 탑을 카메라 렌즈에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동 물 무렵 회부영계 안개에 쌓여 있는 석탑의 신비로움과 처마 곡선을 거스르지 않고 절집 마당에 단아하게 자리 잡은 석탑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작품에 담겼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화양사 사자사 삼층석탑(국보 제35호)과 눈 쌓인 화순 운주사의 모전석탑 등 60여 점이 전시된다. 돌의 짜임새와 비례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석탑을 통해 시대별 불교 미술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62-570-705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첨단도서관 ‘도서관 주간’ 행사 풍성

첨단도서관은 44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15~18일 오후 3시에는 ‘천년학’, ‘로빈슨 가크’, ‘아들’ 등을 상영하는 ‘스페이스 영화속’을 진행하며 18일까지는 국내 작가 8명이 참여하는 아트포스터전과 도서전을 개최한다.

일곡도서관도 같은 기간 행사 ‘독서 박람회’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중에는 별종위키 야생식물 사진전, 출판사 추천 도서 전시회, 원화 전시회 빛그림 도화 전시회 등이 열리며 ‘초조리 편지’의 작가인 배유 안씨를 초청, ‘우리 역사 바로 알기’를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김미은기자 mekim@



을 봄엔 시인이 되자

“식사 때 마다 시(詩)요, 가는 곳마다 제자(題字·회화 등 필적을 남기는 일)였다”

지난 2005년 4월, 양안(兩岸) 분단 이후 56년 만에 대만 국민당 주석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쑨원(連戰)의 부인 광위(方瑤)여사는 방문기간 내내 남모를 속앰이를 토포했다. 매 끼니마다 오리꼬기가 나오듯이, 가는 곳마다 시를 주고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난감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다. 사실 광위여사는 중국 방문 전 고시(古詩)에 정통한 교사를 초빙해 특별과외까지 받았다. “대륙 사람들은 시를 즐겨 읊기 때문에 그에 박자를 못 맞추면 교양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충고가 있어서였다. 하지만 매번 자리를 옮길 때마다 시를 낭송하는 일은 여간 힘들게 아니었다. 광위여사는 식사자리전, 다과 모임이건 장소를 불문한 중국 정치인들의 ‘문화적 감성’에 큰 충격을 받았다.

중국 정치권에서 시 낭송은 더 이상 화젯거리가 아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어 ‘평민총리’라는 닉네임이 붙은 원자바오(溫家寶)는 ‘시인총리’라는 꼬리표가 하나 더 붙었다. 매년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폐막일에 개최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은 그 시낭송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예의 시인총리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잠들기 전 무슨 책을 읽고 어떤 문제로 종종 잠 못이루는가”라는 영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 “긴 한숨 쉬며 남몰래 우는건/고생하는 민생이 애처로워”(長太息以掩涕兮 哀嘆百姓生活艱難)라는 굴원(屈原)의 한시로 국민에 대한 (총리로서의) 애절한 마음을 예뉘려 표현했다.

문학으로서 시는 종종 정치적 수사(修辭)로 변신하기도 한다. 지난해 9월 울산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후보 합동유세장이 대표적 예다. 당시 순하규 후보가 ‘신정아 게이트’의 배후설로 이해한 후보를 거론하면서 유세장은 두 후보의 설전으로 뜨거웠다.

이 때 정동영 후보가 “돌은 내해지만 돌은 누해이고”라는 신라 향가 ‘처용가’를 읊어대기 시작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가 여자 문제를 시달렸는데 마음 놓으시라. 요즘 같으면 치고받을 일이지만 처용은 여유와 관용의 노래를 불렀다”며 “(이곳 울산은)처용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라는 말로 묘한 여운을 남겼다.

최근 광주 무등중 2학년 교사가 지각생들에게 체벌 대신 시를 외우게 해 화제다. 등교시간을 지키지 못한 학생들에게 매 대신 시 한편을 외우게 한 것이다. 종래의 지각생들은 시를 외웠는지 점검하며 지각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한다. ‘시 읽습시다’ 인지 매일 4~5명이 지각했으나 요즘은 1~2명도 줄었다고 한다.

일찍이 공자는 “시를 외지 않은 사람은 마치 바람벽을 대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을 봄에는 나만의 애송시 리스트를 만들어 삶의 여유를 느껴보면 어떨까?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cinema featuring various movie listings, showtimes, and promotional offers across multiple theaters like Mega Box, Enter Cinema, and others.